

기도

1.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감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2.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신앙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첫째, 우선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해야 한다(출 12:19). 둘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레 23:6). 셋째, 첫날에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출 12:16; 레 23:7; 민 28:18, 25). 넷째,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레 23:8). 다섯째,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레 23:8).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를 지키는 날짜나 절기의 기원, 그리고 절기의 의미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훗날에는 구분 없이 지켜졌으며, 신약에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로 불리기도 하였다(눅 22:1).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출애굽기 23장 14-17절 (찬15장, 301장)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절). 오늘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15절).

무교절에는 아빔월의 정한 때에 이레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이 때는 유월절부터 7일간을 말합니다(15절a).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번 째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첫 것을 죽이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신 날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붙잡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무교절 기간에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교절과 비슷한 시기를 부활절로 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16절a).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로부터 50일 째가 되었다 하여 오순절이라 불렸습니다. 오순절은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첫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보리가 가장 처음 나는 곡식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인 보리를 맷어 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부터 50일 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셋째, 예수님 승천 후 첫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강림하셨습니다(행2:1-4).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 첫 열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약1:18).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첫 열매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통해 우리에게 첫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16절b).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곡식을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첫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지금까지 산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을 향해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고,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b, 17절). 이는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최선의 정성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헛되고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교절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통해 우리를 첫 열매 삼아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삶의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